

## 히틀러의 민족사회주의 정책에 대한 기독교회의 태도\*

### The Attitudes of the Christian Church in Germany at the time on the Hitler's National socialism policy

김기흥 (Ki-Heung Kim)\*\*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attitude of the German Christian Church at the time about Hitler's national socialist policies and to explore its implications. Here are some of the key points derived from this study: First, the policies that Hitler and the national socialists revolved around racism and social Darwinism eventually started from a distorted view of humanity.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a correct view of the Bible inside and outside the church for Christian Seco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urch and the state or between religion and politics is a very important factor for establishing the identity of the church and its followers. Therefore, churches and givers have a mission to participate in this society based on Christian worldviews and exert good influence without forgetting the nature of faith. Third, when state powers or rulers carry out anti-Christian values or policies, the Christian believers deserve to resist them. But if state power leads the country with wrong values and governance, it will have to sternly warn and resist based on pacifist spirit, not on violent methods.

**Key words :** Hitler, euthanasia, sterilization, christian church, holocaust

---

\* 2020년 04월 19일 접수, 06월 11일 최종수정, 06월 11일 게재확정

\*\* 부산교육대학교(Busa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유아교육과 교수, 부산광역시 연제구 교대로 24, koelinkim@bnue.ac.kr

## 1. 서론

누군가 역사를 두고 거짓말을 할 때 무관심하지 말아 달라. 누군가 현재의 정치적 필요에 따라 과거를 이용하려 할 때 무관심하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아우슈비츠가 우리를 덮쳐도 놀라지 못할 것이다.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18살 때 강제수용소로 끌려와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잊혀 지지 않는 고통을 겪은 마리안 투르스키(Marian Turcki, 93)는 십계명에 하나의 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면 “무관심 하지 말라”를 넣어야 한다고 이렇게 말했다...(중략)...나치가 팔에 새긴 죄수 번호를 묻지르던 배트-셰바 다간(Bat-Sheva Dagan, 95)은 “인간의 존엄성이 얼마나 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는지 표현할 단어는 사전에 없다”며...(이하생략)...(<https://www.yna.co.kr>).

이는 지난 2020년 1월 27일 폴란드 아우슈비츠(Auschwitz) 강제수용소 해방 75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고령 생존자들의 증언을 담은 기사의 일부이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75여년을 맞이하지만 당시 전쟁이 남긴 수많은 상흔들은 오늘날까지 여전히 국제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및 문화 영역에서 찾을 수 있다. 약 5천여만 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간 전쟁의 주범들은 민족사회주의자들이었고, 특히 그 정점에는 히틀러(A. Hitler)가 있었고, 그는 1921년 7월 민족사회주의독일노동자당(NSDAP)의 대표가 되었다. 히틀러는 1923년 11월 뮌헨에서 바이마르(Weimar)공화국의 전복 실패 후에 투옥 중에 저술한 ‘나의 투쟁(Mein Kampf)’에서 이미 자신의 주요 정치 이념들을 밝혔다. 그는 민족사회주의자로서 국민 개인의 기본권은 무시하고 오로지 전체주의를 지향하며 유대인과 유대교 또는 기독교 등에 대해서 적대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특히 히틀러와 민족사회주의 정권의 세계관은 극단적인 인종주의(Racism)와 사회적 다윈주의(Social Darwinism)등의 정치이념에 깊이 함몰되어 있었다. 히틀러는 1933년 1월 30일 폰 힌덴부르크(P. von Hindenburg) 바이마르공화국의 대통령으로부터 제국총통으로 임명되었다. 그 이후에 그는 각종 테러와 긴급명령, 관제법(官制法) 제정, 다른 조직이나 정당 활동금지 등으로 수많은 국내외 반대세력들을 강제수용소에 구금하거나 고문 및 살인을 자행하였다. 1934년 8월 2일 폰 힌덴부르크 사후에는 급기야 공화국 대통령직을 제국총통의 직과 합쳐 소위 ‘지도자(Fuehrer)’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거머쥐게 되었다(김기홍, 2018: 147).

독일 제3제국의 민족사회주의자들이 따르는 세계관의 중심에는 특별히 히틀러가 맹종하는 인종학이 자리를 잡고 있다. 이에 따르면 우수하거나, 아니면 열등한 인종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아리아족만이 가장 탁월하므로 다른 인종을 지배해야 한다는 것이다. 히틀러는 이른바 ‘아리아=게르만=독일’이라는 등식을 성립시켜 독일만이 세계의 지도자 역할을 할 자격이 있는 것으로 호도하였다. 반대로 나치정권은 아리아인들에게 가장 위협한 요소와 하등의 인종으로는 특히 유대인과 슬라브인으로 간주하였다. 히틀러는 자신의 저서인 ‘나의 투쟁’에서 ‘유대인은 인종학적으로 가장 열등하며 생존력 있는 국가를

스스로 만들 능력이 없다'라고 단정하기도 하였다. 그 당시 달변가였던 히틀러의 정치 이념적인 여러 가지 수사학들은 제1차 세계 대전의 패배감과 더불어 세계경제 대공황이라는 어려운 시기에 빠져있던 대다수 독일 국민들에게 외형적으로는 이른바 메시아로서의 큰 신뢰감과 기대감을 안겨주기에 충분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자신의 왜곡된 인종주의 사상 등을 기초로 하여 인류 역사상 수많은 반인간적이고 불법적인 국가적 범죄를 집권기간 동안 무수히 저질렀다. 그는 이미 자신의 저서인 '나의 투쟁'에서 공공연하게 강제적 불임시술을 강조한 바와 같이 1933년 7월 14일에 이른바 '군주(지배)적 민족(Herrenvolk)'을 완성하기 위해 '차세대 유전성 질병 예방법(Gesetz zur Verhuetung erbkranken Nachwuchses)'을 제정하였다. 국가의 강제적 불임시술 정책은 약 40만 명의 조현병, 조울증, 맹, 농, 뇌전증, 중증지체장애, 지적장애 및 알코올 중독증 환자에게 실행되었다. 그리고 오스트리아에서도 1940년-1945년 사이에 최소한 6천여 명의 남녀가 강제적인 불임시술의 희생자가 되었다. 1935년 9월에는 인종차별을 위한 다양한 법령인 뉘른베르크 법(Nuernberger Gesetze)과 1938년 '11월의 박해(Novemberpogrome)' 사건 등으로 대대적인 유대인 탄압정책이 시작되었다. 결국 1935년부터 제2차 대전이 종전되기까지 독일 내뿐만 아니라 폴란드 등 전 유럽에 거주했던 약 560만 명에서 630만 명가량의 유대인들이 이른바 홀로코스트(Holocaust, '번제(燔祭)'를 의미하는 구약성경의 표현에서 유래됨)로 처참하게 희생되었다(Benzenhöfer, 2006: 64).

더군다나 히틀러와 민족사회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정치이념을 바탕으로 노동, 학습, 치료 등이 불가능하다고 본 경우 '살 가치가 없는 목숨(lebensunwertes Leben)'으로 분류하였다. 이에 1939년 여름 히틀러는 소위 '성인안락사(Erwachsenen- Euthanasie)' 준비를 지시했고, 같은 해 9월에는 비밀리에 특정 의사들에게 장애인이나 난치병 환자들에 대한 살해권한을 위임하였다. 1939년에는 전쟁 동원령이 하달됨에 따라서 각종 의료 시설의 서비스가 크게 악화되고, 전쟁 중에는 식료품 부족현상이 발생하였다. 또한 전상자 및 환자들의 수가 날마다 급증하여 많은 의료진과 간병인들도 필요한 시점에서 환자들이나 장애인들은 누구에게도 유용하지 않는 '쓸데없는 존재'나 '식충이'로 여겨졌다. 결국 나치정권은 이들이 국가나 경제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소비적이고 낭비적인 존재로 간주하여 잔혹한 멸절 정책을 결의하였다. 1939년 9월부터 1941년 8월 사이에 베를린 'Tiergartenstr. 4'번지에 본부를 둔 소위 'Aktion T-4' 안락사 프로그램을 통하여 약 7만여 명 이상의 정신질환자, 지체 및 지적장애인, 유전성 질환자들이 당시 여섯 곳에 설치된 '죽음의 공장'인 가스실에서 강제적 안락사로 목숨을 잃었다. 그 후로도 제2차 대전의 종전까지 여러 형태의 안락사 범죄로 최소한 20만 명 이상이 국가적 범죄에 의하여 비참하게 숨졌다(Aly, 1989: 81).

또한 히틀러의 인종주의 사상은 종국적으로는 '생활공간이론(Lebensraumtheorie)'으로까지 확대되

어 결국은 약 5천만 명의 희생자를 낸 피비린내 나는 식민지 전쟁으로 이어졌다. 그는 1939년 9월 1일 폴란드에 대한 기습공격을 명령함으로써 유럽에서 제2차 대전이 발발하였고, 이어서 동부유럽 정복을 위하여 1940년 7월 31일에는 소련 공격을 결정하고 1941년 6월 22일 소련과의 전쟁으로 확대되기에 이르렀다(Michalka, 2002: 16).

이에 대다수 국민들은 군대와 나치 친위대(SS), 나치돌격대(SA) 및 비밀경찰(Gestapo) 등으로 강력하게 무장한 히틀러와 민족사회주의자들의 왜곡된 정치이념과 여러 가지 부당한 정책에 대하여 비록 소수이지만 다양한 계층에서 여러 형태의 저항운동이 일어났다. 또한 반 나치정권 세력들은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프랑스의 레지스탕스와 같은 여러 단체에 가입하여 민족사회주의 독재 정권에 맞서기도 하였다. 무엇보다도 제3제국 시대의 불의한 정책에 대하여 당시 독일 기독교회는 대다수 나치 정권에 협력하거나 지지한 세력도 있었지만, 나치정권에 적극적이고 강력한 저항 운동도 동시에 살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가톨릭교회의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폰 갈렌(C. A. G. von Galen) 주교가 나치정권의 범죄 정책에 대하여 강론 중에 정면으로 비판하였다. 또한 개신교회의 측면에서는 특히 본회퍼(D. Bonhoeffer) 목사가 독재정권에 적극적인 투쟁으로 맞서다가 투옥되어 결국 죽음을 맞이하기도 하였다(Cartarius, 1984: 55).

이에 본 연구에서는 히틀러와 민족사회주의 정권이 왜곡된 정치이념들을 바탕으로 장애인에 대한 강제적 불임시술을 비롯하여 유대인 탄압이나 장애인 안락사와 제2차 세계대전 등 대표적인 일련의 끔찍 했던 국내외 정책들에 대하여 당시 독일의 기독교회가 기독교인들이 보인 태도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이를 통하여 우리 시대의 기독교인과 교회에게 주는 시사점을 소고해 보는데 연구의 의의를 둔다.

## II. 히틀러 정권에 대한 저항 운동의 개관

대부분의 독일 국민들은 1933년 초 새롭게 들어 선 민족사회주의 정권을 환영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그들은 인종주의와 사회적 다윈주의 등을 기초로 형성된 이른바 ‘민족공동체(Volksgemeinschaft)’ 이념 정책에 만족하였기에 많은 서민들은 현 정부에 저항을 할 특별한 이유를 찾지 못하였던 것이었다. 또한 당시 민족 공동체의 이상형에 포함되지 않은 대표적 부류로는 유대인을 비롯하여 동성애자, 장애인, 사회부적응인 및 다른 소수민족 등이 속하였다. 실제적으로는 나치정권의 정치 이념이나 정책에 대하여 국민들 중 단지 소수들만 저항운동에 참여했으며, 또한 반 나치 무장 항거 역시 독일 국내 및 독일군의 점령지에서도 소수들에 의하여 행해졌다. 이러한 반정부 운동은 각각의

윤리적, 정치적 혹은 종교적인 신념에 따라서 개별적으로나 혹은 조직 및 집단을 구성하여 다양한 형태의 저항을 보인 것이었다(Fieber, 2006)

1933년 1월 정권을 인수한 후 민족사회주의자들은 조속히 계획적으로 모든 정적이나 경쟁자들을 숙청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민족사회주의독일노동자당(NSDAP) 외의 모든 정당 활동은 금지시켰고, 언론이나 국민여론은 나치정권에 의하여 철저히 통제되었다. 1933년 2월 27일과 28일에 걸쳐 발생한 제국의 회건물의 방화사건 이후에 제정된 이른바 ‘제국의회 방화규정(Reichstagsbrandverordnung)’을 통하여 바이마르 공화국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도 전면 폐지되었다. 이 법은 결국 나중에 교회 지도부들에 대한 감시와 구금을 합법화하는데 사용되었지만 교회당국은 이를 전혀 예상을 못하였다. 이에 대해 공산주의자, 사회민주주의자, 사회주의자 및 노동조합원들은 팜플렛, 전단지 등을 통하여 나치 독재정권의 인간 경멸적인 정책을 비난하고 나섰다. 그러자 히틀러와 민족사회주의자들은 이러한 행위를 내란죄로 간주하여 혹독하게 처벌했지만, 보수주의자뿐만 아니라 진보진영의 반 나치세력들도 민족사회주의 독재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 적극 동참하는 저항 세력들은 점점 증가하였다. 여기에는 신·구교 기독교인들과 다른 소규모 종교 단체들도 마찬가지로 신앙의 자유에 대한 국가의 침해 정책에 대하여 문서화를 통하여 항거하며 자신들의 주장과 신앙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변호하고자 하였다(Graml, 1994: 101).

심지어 나치정권의 중심 축근들조차도 강력한 저항운동에 참여하기도 했는데, 특히 1938년과 1944년 사이에 나치정권의 전복을 목적으로 한 군부의 쿠데타와 반정부 음모시도가 있었다. 히틀러 독재정치에 대한 거부 운동은 청소년층에서도 있었는데, 초기 정치나 종교 분야에서의 청소년 협회의 회원들이 나치정권의 국민 기본권 박탈 및 획일성 정책에 대립하며 자신들의 자주성이나 독립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하였다. 또한 정치적 혹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탈영이나 전시근무의 거부 등도 반 나치정권에 대한 저항의 한 형태였다. 일부 군인들은 나치 정권의 민족사회주의적 폭력 범죄에 직면하여 국가적인 지시에 따를 의도가 없어 탈영하는 사례도 빈번하였다. 그리고 극심한 탄압 속에 있는 유대인이나 강제 노동자 혹은 전쟁포로를 위한 음식물이나 위조된 서류 제공 등 이른바 ‘이적행위’ 혹은 ‘국가 전복죄’에 해당하는 매우 위험한 지원활동들도 전쟁의 일상에서 나타난 반정부 저항운동의 일부에 속하였다. 반 히틀러 저항운동은 국내 정책뿐만 아니라, 폴란드에 대한 기습공격으로 시작된 제2차 대전과 이후에 진행된 유럽 내 유대인을 비롯하여 소련의 전쟁 포로와 집시 족 등에 대한 민족말살 행위 등 국외문제에 대해서도 일어났다.

이처럼 나치정권에 대한 반정부 운동은 주로 정치적 이념이나 종교적 동기를 바탕으로 기독교계뿐 아니라, 노동자, 대학생, 군 장교, 법조인 및 정치인 등 다양한 계층들이 여러 모양으로 저항하였다. 이에 대해 무소불위의 권력자들은 저항세력들을 반역죄로 다스리며 비밀경찰(Gestapo)과 나치친위대(SS)에

의하여 무력으로 무자비하게 탄압하였다. 이에 히틀러와 민족사회주의 정권에 대한 비판이나 공개적인 거부나 시민 불복종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자행되는 엄중한 국가적 상황 중에 반대세력의 수가 적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쉽게 짐작할 수 있다(Mommsen, 2000; Steinbach & Tüchel, 2004: 19).

또한 반 히틀러 항거운동은 독일군의 점령지에서도 있었는데, 예를 들어, 스칸디나비아 삼국과 네덜란드, 벨기에, 프랑스, 이탈리아, 발칸반도 및 동부유럽 등에서 수많은 게릴라 대원들이 독일 나치정권에 맞서기도 하였다. 특히 1945년 종전까지 약 42회에 걸친 다양한 히틀러 암살 시도가 있었지만, 사전 발각이나 기폭장치의 이상 작동 혹은 독재자의 급작스런 일정 변경 등으로 인하여 모두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 IV. 히틀러 정권의 정치이념과 정책에 대한 당시 독일 기독교회의 저항 운동

### 1. 히틀러의 교회(기독교)관

히틀러는 1920년 2월 24일 뮌헨의 한 공개 연설에서 나치당의 25개 강령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주로 게르만의 우월주의와 타민족 정복야욕, 유대인에 대한 극단적 증오심 등을 골자로 하여 대(大) 독일 제국의 지향, 베르사유 조약의 파기와 강력한 권위적 국가건설을 목표로 하였다. 특히 기독교 등 종교와 관련하여 24번째 조항을 보면 히틀러는 민족사회주의적인 독특한 종교관을 바탕으로 제한적이고 조건부였지만 마치 기본적으로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 듯 보였다(Thamer, 1994). 이를 증명이나 하듯이 1928년 반유대주의 문필가이자 정치인이었던 딘틀러(A. Dintler)는 자신의 반 가톨릭적 비방행동들이 오히려 해당행위로 간주되어 당으로부터 제명 처리되었다. 또한 나치당의 고위지도자이자 동유럽 점령지의 총독이었던 로젠베르크(A. Rosenberg)도 자신의 저서인 '20세기의 신화(Mythos des 20. Jahrhunderts)'에서 서술된 반기독교적인 내용이 오로지 사건이며, 결코 당의 입장이 아님을 분명히 밝혀야 했다. 이처럼 겉으로 히틀러는 반기독교 사상가들과 자신이 동일시하는 것에 대해 거부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게다가 그는 한 연설에서 기독교와는 대립적인 사상인 마르크스주의와 무신론을 공격하였고, '전능자'와 '하나님의 섭리'라는 용어를 반복적으로 언급하기도 하였다. 또한 민족사회주의자들은 일정기간 동안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교회 내부의 소여성(所與性, Gegebenheit)과 관련된 중요한 일이나 신학적인 사안에 직접적인 관심을 보이지 않기도 했다. 또 1935년에는 민족사회주의자들의 한 공고문에 다음과 같이 정치와 종교의 차이를 구분하여 제시하기도 했다.

정치적인 것은 비록 그것이 매우 중요하지 않더라도 지상의 조직이나 단어, 이미지 및 행동이 국민에게

유익한 모든 것을 말한다. 한편 종교적인 것은 천국이나 영원성에 대한 믿음이나 가시적인 세계 너머에 있는 것에 대한 갈망과 같이 세상의 형태로는 이해할 수 없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Iber, 1987: 58).

민족사회주의자들은 1933년 7월 20일 독일제국과 로마교황청 간의 조약을 통하여 교회와 국가 간의 엄격한 상호 분리 약속을 근거로 하여 교회도 제3제국의 정치적 발전에 어떤 형태의 적극적인 참여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교회는 단지 종교적인 문제에 국한되는 경우에만 자유가 보장되었고, 만일 교회와 민족사회주의자들 간의 긴장 조성은 교회가 자신의 종교적인 경계를 넘어 정치세계로 진입한 원인에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나치정권은 이런 갈등관계는 교회가 정치적 간섭을 중단할 때만 비로소 종결될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개신교 성직자와 평신도들에게 있어서 종교와 정치의 분리적 사고라는 민족사회주의자들의 입장은 전혀 새로운 것도 아니었고, 또한 환영받지도 못하였다. 나치정권의 교회와 국가의 분리적 이해는 루터(M. Luther)의 소위 하나님 왕국과 세상 왕국이라는 '분리된 두 왕국론(getrennte Koenigreiche)'이나 혹은 마태복음 22장 21절의 '...그러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언급이 정치(국가, 황제)와 종교(교회, 하나님) 간 분리사상의 역사적 근거로 해석한 것이었다. 그러나 1938년 이후 개신교회 내에 나치당 당원인 호센펠더(J. Hossenfelder)목사를 지도자로 하여 일단의 평신도들이 '독일 그리스도인 운동(Bewegung Deutscher Christen: DC)'을 조직하였는데, 이 단체의 주목표는 교회가 독일의 국민교회로 탈바꿈하여 개신교 세계를 새롭게 혁신하자는 것이었다. 또 그들은 교회를 더 이상 감독이나 검열관들이 아니라 평신도들과 목사들에 의하여 운영되기를 기대하였다. 게다가 1933년 11월 13일 종교교육학자이자 인종주의자의 대표이며 베를린의 '독일 그리스도인 운동'의 지도자였던 크라우제(R. Krause)가 베를린에서 행한 연설에서 하나님은 독일을 위한 자신의 계획을 히틀러를 통하여 실현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천년의 독일 역사가 달성할 수 없었던 것과 비스마르크가 이를 수 없었던 것을 우리 지도자인 히틀러의 강력함으로 신이 성취한 것이다...(중략)... 만약 통치에 관하여 말하면, 우리는 오직 한 가지뿐인 힘만 필요하다. 즉 히틀러와 그의 보좌관들의 권위이다(Schwarz, 2015: 73).

한편 대공황의 경제 위기에 시달리던 독일 국민들은 1930년에서 1933년 사이에 대거 교회를 떠나게 되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히틀러의 권력이 점점 상승함에 따라 기독교에 대한 민족사회주의자들의 정치적 선전 선동은 독일 교회로 하여금 부흥에 대한 기대를 이끌 만큼 감언이설로 귀를 솔깃하게 만들었다. 당시 히틀러와 민족사회주의자들은 마르크스주의적 무신론과 유대주의적 물질주의 및 봉

괴된 도덕성 등에 대하여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정서는 국가적 권위 향상이나 지도력의 고취 또는 도덕성의 회복 등을 내세운 나치정권의 강력한 요구와 결합하여 평범한 독일시민들에게는 1933년이 소위 ‘교회의 해(das Jahr der Kirche)’로 알려질 정도로 민족사회주의자들을 친기독교적인 긍정적 세력으로 인정하고 지지할 정도였다.

히틀러는 1933년 3월 23일 제국총통으로 제국의회 첫 연설에서 일상적인 사회생활 중 정치적, 도덕적 해악을 제거함으로써 심오한 내면적 종교생활을 위한 환경 조성을 강조하며 외면적으로는 친 종교적인 정치 공세를 펼쳤다. 즉 교회와 국가 간의 체결된 협정은 서로 존중되고, 상호권리는 저촉될 수 없는 것으로 거듭 밝힘으로 신뢰를 쌓아갔던 것이었다. 이처럼 히틀러는 공개 석상에서는 종종 친기독교 정책을 천명하며 교회의 보호를 약속하는 가운데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나치정권을 따르도록 유도하였다. 그러나 사석에서 그는 그와 정반대로 교회와 기독교에 대하여 전혀 다른 방식으로 말하며 기독교를 부정하고 교회를 궁극적으로는 철저히 말살코자 호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었다.

히틀러와 민족사회주의자들이 기독교에 대한 정치적 수사학은 1933년 3월 23일 나치독재의 기반이 된 전권위임법(Ermaechtigungsgesetz)과 히틀러 집권에 결정적 역할을 했던 가톨릭 중앙당(katholische Zentrumspartei)의 적극적인 지지를 통하여 바이마르 헌법을 무력화하여 독일의 민주주의를 폐지하는 데 필요한 과반수 표를 얻었던 것이다. 또한 그는 권력이양 후에는 바티칸의 교황청과 국가 간에 상호 안전 보장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그는 가톨릭 중앙당의 당수조차도 성공하지 못했던 외교정책을 이루어냄으로 국제적인 지도력에서도 큰 명성과 인기도 얻게 되었다.

한편 포츠담(Potsdam) 대학의 역사학자인 브레헨마허(T. Brechenmacher) 교수에 의하면 히틀러의 교회관은 대체로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그의 글이나 연설을 살펴보면 감언이설로 위장된 전략적 계산이라는 것이다. 또한 그는 히틀러가 가진 자신의 총체적인 세계관, 인간관 등이 일반적인 기독교의 입장과는 전혀 반대 입장에 있으므로 근본적으로 기독교인이 아닌 것으로 보았다. 민족사회주의와 개신교 간의 연관성에 대하여 베를린 공과대학교의 역사학자인 가이루스(M. Gailus)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히틀러와 민족사회주의자들은 마치 카멜레온처럼 행동한다. 카멜레온은 항상 배경색을 받아들이는 특성이 있다. 이렇게 민족 사회주의자들도 종교적인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동일하게 행동하였다. 만일에 종교적인 주제가 저들과 친숙한 부분에 대해서는 친 교회와 친 기독교적 성향을 보였지만, 다른 상황이나 맥락에 처해 있을 경우에는 재차 어느 정도 거리를 두기도 했다(Gailus, 2001: 55).

히틀러는 자신의 권력이 점점 안정적으로 굳어질수록 원래 자신의 교회정책의 궁극적 목적인 사회

로부터 교회의 완전 소멸에 박차를 가하였다. 이에 1937년부터는 가톨릭 신자들에 대한 박해가 더 심해졌고, 또한 나치정권은 일상생활에서 기독교 신앙이나 의식을 제거하려고 일반적인 공휴일들을 기독교 기념일로 대신하여 지정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히틀러는 1930년대 집권초기부터 자신의 헛된 정치적 이념을 펼치는데 장차 교회가 큰 방해거리며 위험한 잠재적인 저항기관이 될 것으로 이미 인식하였다. 결국 히틀러에게 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민족사회주의의 신을 추종한 것이었다. 특히 히틀러는 다른 어떤 믿음보다도 지도자인 그를 수천만의 독일 국민들이 마치 구세주인 마냥 따를 준비가 되어 있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진 것이었다.

## 2. 나치정권에 대한 기독교회의 저항운동

1933년에 독일의 전체인구 중 약 95%가 기독교인이었고, 그 중에 약 4천 1백만 여명이 개신교인, 약 2천 1백만 여명이 가톨릭 교인이었다. 당시 가톨릭교회는 매우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했는데, 히틀러와 민족사회주의자들의 권력 이양과 동시에 독일에서 교회의 사회적 위치나 의미가 크게 위축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하여 교회 내부적으로 나치정권에 대한 관계 설정에서 통일된 입장은 없었다. 특히 교회와 민족사회주의 정권 사이에 상호 협력의 정도를 정하는데 있어서 국가와 기독교 혹은 교회 내에서도 순응과 저항이나 공격적 항거 사이에서 입장 차이로 갈등과 분열이 시작되었다. 당시 기독교인들의 대다수는 히틀러 정권의 감언이설과 교묘한 전략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추종하거나 지지하는 등 교회와 국가, 하나님과 권력자 사이에 극심한 분쟁과 혼동의 시대를 맞이하였다. 기독교회는 민족사회주의 정권이 수립된 후인 1933년 초에는 한편으로 거부적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기대하는 모순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1937년부터 히틀러의 관심은 제2차 대전을 준비를 위하여 특히 외교정책에 점점 더 비중을 두었고, 국내정치에서는 먼저 국민적인 소요를 가능한 피하고 교회와의 논쟁은 전쟁이후로 연기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나치정권은 기독교계 반대파나 비판적 사상가들에 대하여 점진적으로 괴롭히는 정책(Politik der Nadelstiche)을 통하여 교회 기관을 통제하고 그들의 사회적 영향력을 점점 소멸하려고 계획했다(Steinbach & Tuchel, 2004: 120-122).

나치정권의 부당한 정책들에 대하여 가톨릭교회의 경우에는 특히 교회의 계층적 구조로 인한 통제로 표현의 자유와 독립적인 활동이 상당히 제한적이었다. 그에 비해 개신교는 민족사회주의 정권의 문체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공동체 내에서 독자적인 길도 갈 수 있어 훨씬 더 비판적이고 공개적인 토론이 가능했다. 그러나 민족사회주의 정권의 권력이 점차 강화됨에 따라서 기독교에 대한 억압의 강도도 높아졌지만 가톨릭이나 개신교회를 무론하고 소수의 교회 지도자나 교인들만을 중심으로 저항운동이 일기 시작하였다.

### 1) 가톨릭교계의 입장과 저항

가톨릭교회는 오랫동안 국가의 불의한 간섭에 대하여 저항하는 전통이 있었으며, 또한 믿음으로 인한 박해는 당연히 감수하는 것으로 보았다. 1920년대 말경에 점점 정치적 입지를 굳히며 권력의 전면으로 급부상하는 히틀러의 존재에 대해서도 가톨릭계에서는 매우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1930년 9월 14일 제국의회선거에서 민족사회주의독일노동자당이 18.3%의 높은 득표율을 보이자 고위직의 성직자들이 특히 나치당의 기독교, 인종, 학교 등에 대한 왜곡된 인식에 대하여 지적하였다. 게다가 가톨릭계 주교들은 공동 목회서신을 통해 불세비즘이나 사회주의만큼 나치즘은 반 기독교적이라는 입장을 수차례 표명하였다. 이러한 거부적 입장은 1933년 1월 30일까지 이어졌고, 가톨릭 지도부는 교인들의 나치당 입당을 전면 금지시킴으로서 대립관계는 더 심화되었다.

그러나 1933년 1월 30일 히틀러가 권력을 이양한 후부터 가톨릭계는 진퇴양난의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다. 즉 가톨릭교회가 한편으로는 나치정권을 비난하였지만, 다른 한편으로 히틀러와 나치당을 합법적인 국가의 통치자로 인정하였고, 또 가톨릭 교리에 의거하여 새로운 정부에 대하여 국민으로서 국가에 복종을 요구했기 때문이었다. 더군다나 히틀러의 현란한 정치적 수사학은 많은 가톨릭 인물로 하여금 교회와 새로운 권력자들 간에 협력관계를 희망하게 만들었고, 결국 가톨릭주교들이 지금까지 나치당과 지도자에 대한 무수한 경고를 철회하는 기회로 이용되었다.(Immenkoetter, 1994: 20).

그리고 새 정부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도 대다수 독일 주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특히 일부 주교들은 나치즘에서 불세비즘 등 위험한 사상과 싸우는 데 큰 도움을 주는 동맹자로 여기기도 했다. 그래서 1933년 6월 8일 주교의 공동 교서에 새로운 정부에 대한 광범위한 동의와 지지를 표명하면서 결과적으로는 나치정권의 감언이설과 치밀한 계략에 서서히 넘어가게 되었다. 그 당시 가톨릭계의 고위 지도자들이나 개별 주교들의 경고성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많은 가톨릭 인들은 그 조약 속에 교회에 대한 불가침성과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으로 보았던 것이었다. 그러나 이 조약체결 후에 나치 국가와 교회 사이 상호간의 화해 분위기가 절정에 이르자마자, 곧 교회대표들 사이에 환멸과 각성 분위기가 널리 퍼지기 시작했다. 1933년 가을부터 이미 이념적으로 왜곡된 히틀러 정권이 자신의 과거 약속들을 지키지 않았던 것이었다. 모든 생활 영역에서 전체주의적인 사상을 강요하는 민족사회주의는 교회언론을 검열하고 종교교육을 점점 금지조치를 하는 등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종교적 혹은 기독교적인 삶을 점점 더 외면하도록 압박하였다. 이에 개별적으로 주교들이나 사제 혹은 가톨릭 교구민들은 조약 위반에 대하여 거리행진 등 다양한 형태로 공개적으로 항의를 하며 민족사회주의자들의 세계관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Roth, 2008: 95).

1935년 나치정권은 가톨릭 성직자들과 수도회 지도자들을 사전에 모의된 소송절차를 통하여 가톨릭 교인들에게 불신과 악평을 받도록 유도하였다. 이에 교회는 2년 동안 이 관행을 중단하려고 노력했

으나, 교황 피우스 XI세(Pius)는 민족사회주의자들을 공개적으로 기소하기로 결심하였고, 1937년 3월 21일 '불타는 염려로(Mit brennender Sorge)' 라는 자신의 독일어 교서에서 히틀러의 정책을 비판하고 나치주의의 세계관을 맹렬히 공격하였다. 이러한 회보가 모든 독일교회에 전달된 후부터 성직자들에 대한 박해가 절정에 달했는데, 이러한 반정부 운동으로 말미암아 성직자들은 여러 해 동안의 징역과 강제 수용소에서 무서운 학대를 겪어야 했다. 결국 1945년까지 총 3천명 이상의 사제와 수도회 지도자들이 강제수용소 특별구역에 구금되어 그 중에 1천여 명이 결국 목숨을 잃었다(Schwake, 2005).

1939년 9월 제2차 세계 대전의 시작은 국가와 교회 간의 갈등에 있어서 약간의 숨 돌릴 틈을 마련해 주었는데, 히틀러는 교회와 일종의 당쟁싸움을 일시 중단하고 전쟁에 대한 전폭적인 국민적 지지를 얻고자 하였다. 그러나 세계 대전과 비슷한 시기에 시작된 지적장애인 및 지체장애인 등에 대한 나치정권의 조직적인 안락사 프로그램 실행은 곧바로 가톨릭교회로부터 새로운 비판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독일의 많은 지역에서 성직자들이 나치정권의 장애인과 정신질환자에 대한 대량 안락사를 합리화하고 미화한 '나는 고발한다(Ich klage an)'라는 제목의 영화에 대하여 항의하였다. 그 중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끼친 저항운동은 파사우(Passau)의 지역 주교인 란더스도르프(S. K. Landersdorfer, 1880-1971)가 자신의 목회서신에서 이 영화를 나치의 정치적 선전물이라고 강력히 비판하였다. 그는 여기에서 민법(BGB)제 211조를 근거로 하여 장애인이나 질환자들에 대한 살해행위는 단지 기독교의 계명에서 뿐만 아니라 국법에도 저촉됨을 강조하였다. 그는 말이나 이미지를 통하여 난치성 환자들을 살해해도 되거나 혹은 살해해야 한다고 선언하는 교회뿐 아니라 국가에 대해서도 저항한다고 경고하였다(Gerhardus & Mensing, 2007: 54-55).

특히 뮌스터(Muenster) 지역의 주교인 폰 갈렌은 이른바 '살 가치가 없는 목숨'으로 분류된 장애인 및 정신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국가가 자행한 대량 학살에 대하여 1941년 7월과 8월에 3회에 걸쳐 강론 중에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이때 히틀러의 최 측근인 보르만(M., Bormann)이 갈렌 주교의 즉각적인 처형을 히틀러에게 요구했지만 독재자는 가톨릭계에서 순교자를 만들고 싶지 않았고 '그러면 우리는 베스트팔렌(Westfalen)지역을 전부 잃게 된다... 복수는 차갑게 즐겨야한다. 뜨겁게 보다는...'이라고 언급하면서 오히려 거절했다고 한다. 갈렌 주교는 계속하여 나치정부가 앞으로 전상자들도 이렇게 죽일 것인지에 대하여 물으며, 히틀러 정권의 가장 악한 정책에 대하여 적극 반대하였다. 이러한 폰 갈렌 주교의 강론은 개별 가톨릭 인들 뿐 아니라 비가톨릭 인들에 의하여 복사되어 정권의 반대자들에게 배포됨으로써 전체 독일제국에 알려졌고, 전쟁 중 전선의 모든 군인들에게도 급속히 전파되었다. 이를 통하여 국가의 조직적 대량 학살은 마침내 일반 대중들도 간파하게 되었다. 이에 국민들도 안락사에 대하여 더욱 더 거세게 항의를 하자 결국 히틀러는 1941년 8월 24일 공식적으로 'Aktion T-4'안락사 프로그램의 중지를 지시하였다. 물론 이 시점은 이미 약 7만여 명이 강제적 안락사로 목숨을 잃은 후였다. 그럼

에도 이후에도 비밀리에 대량학살 행위는 다른 방식으로 계속 자행되었고, 히틀러 정권이 끝날 때까지 교회는 대체로 조용한 편이었다. 대다수의 교회 지도부는 단지 자신의 법적 지위를 지키고 기독교인들을 보호하는 선으로만 항의가 제한적으로 일어났다. 실제로 나치 정부에 대한 공개적 항의나 저항은 오로지 몇몇 소수의 용감한 일반교인이나 사제들에게서만 일어났다(Knopp & Glueckert, 1999: 28).

그러나 나치정권이 저지른 안락사 프로그램은 아마도 이념적인 사전 작업과 더불어 특히 기독교회 대표들의 실제적인 협력이 없이는 어떤 형태이든 실행 자체가 거의 불가능했을 것이다. 기독교회는 장애인이나 정신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장차 일어나게 될 멸절정책을 이미 년지시 준비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1927년 로마가톨릭의 필독서에 속하는 ‘정신질환자의 법적 불임시술(Gesetzliche Unfruchtmachung Geisteskranker)’이라는 책이 출간되었다. 이는 프라이부르크(Freiburg)에 소재한 독일가톨릭사회복지학연구소(Institut fuer Caritaswissenschaften)의 윤리 신학자였던 마이어(J. Mayer) 박사가 저술한 책이었다. 여기에서 마이어 박사는 장애인들의 성생활에 대하여 경고하며 ‘유전적인 소인이 있는 정신질환자들은 본능적인 성생활 가운데서 무분별한 동물적인 단계에 있다’라고 매우 부정적으로 언급하였다.(Gerhardus & Mensing, 2007: 51-52).

결국 독일의 많은 가톨릭 시설들은 나중에 ‘살 가치가 없는 목숨’으로 분류된 사람들에게 국가적인 강제불임시술과 이어진 안락사 범죄에 정부기관과 협력하기도 하였던 것이었다.

이어서 홀로코스트에 대항하는 가톨릭계의 유사한 저항운동은 거의 없었는데, 예를 들어, 반유대인 선전 영화물이며 항의의 근거가 될 만했던 ‘유대인 쥐스(Jud Süß)’에 대하여서는 오히려 가톨릭 주교들이 비판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것은 오랜 역사적 이유로 가톨릭교회의 일부 지역에서도 잠재적 반유대주의가 만연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톨릭교회는 반유대주의에 대해 오랫동안 침묵을 지켰고, 교회 스스로 교회법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일부 허용했는데, 그 예로 바로 혼혈결혼금지를 들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민족사회주의자들이 구약 성경을 ‘유대인 성경(juedische Bibel)’이라고 공격했을 때, 반대로 모든 주교들은 종교교사들이 구약성경을 다루지 않으면 종교교사 자격증을 박탈할 정도로 구약에 대한 굳건한 신뢰를 보이기도 했다. 폰 갈렌 주교의 경우에도 나치의 노약자나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만행은 비난하면서도 유대인들이 강제추방 당하는 일에 있어서는 단지 자신의 설교에서 간접적으로만 언급하여 나치의 반유대주의 정책은 큰 방해를 받지 않고 지속되었다(Bajohr & Loew, 2015).

또 다른 한편으로 1941년 11월에 주교들이 제국수상에게 보낸 청원서에는 ‘모든 사람은 생명과 또한 그 생명을 위해 필요한 물품에 대한 자연스러운 권리를 가진다’라고 언급하였다. 그리고 ‘우리 주교들은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는 것에 대한 항의를 중단하지 않을 것이다...(중략)... 살인하지 말라!’라고 선포하였다. 그 당시 공개적인 저항을 한 소수의 고위층 교회지도자 중에는 베를린 대성당의 주임신부인 리히텐베르크(B. Lichtenberg)가 있었다. 그는 유대인에 대한 반국가적인 협력 죄로 체포되었으며, 1941년

10월 25일 비밀경찰들에게 다음과 같이 진술하여 조서에 기록되었다

...(전략)... 그러나 나는 가톨릭의 사제로서 처음부터 정부가 취한 모든 규정이나 조치에 대해서 찬성할 수가 없다...(중략)... 만일에 그러한 정부의 지침이나 조치가 기독교에서 계시된 가르침에 반대되는 정부 지침이나 조치와 또는 이로써 나의 사제로서의 양심에 반한다면, 나는 나의 양심을 따르고, 이로 인해 개인에게 초래될 수 있는 모든 결과들을 받아들일 것이다...(중략)... 너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나는 유대인 속에서 내 이웃을 인식한다. 그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불멸의 영혼을 소유하고 있다(Feldmann, 1996: 48).

가톨릭교회는 수세기 동안 만연했던 반유대주의와 이념적 지향점이 겹치기도 하여 오랫동안 나치주의자들과 화해나 협력관계가 형성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반 히틀러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안위만 생각하고 박해를 받고 희생되는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고 가톨릭교회를 비난하기도 하였다.

한편 나치정권의 장애인에 대한 강제적인 불임시술 정책에 대하여 가톨릭계는 인종정책, 종교적 신념, 신체적인 불가침에 대한 권리 강조, 불임시술 받는 자에 대한 동정심 등을 들어 반대하였다. 1930년 12월 31일 교황 피우스 11세는 까스띠 혼누비이(Casti Connubii, 그리스도인의 정결한 결혼생활)교서를 반포했는데, 이에 따라 1933년 7월 나치정권이 제정한 불임시술법(Sterilisierungsgesetz)은 가톨릭교회로부터 격렬한 비판을 받았다. 특히 1861년 창간되어 바티칸시티에서 발행되는 교황청의 대변자인 오세르바토레 로마노(L'Osservatore romano)라는 일간신문은 나치정권의 불임시술 정책에 대하여 여러 가지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 독일 주교단은 나치정권이 이 법을 시행할 때 특히 가톨릭 교인들이 참여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도 했다. 1935년까지 가톨릭계의 저항 형태는 주로 설교나 제국정부에 진정서 제출, 목회서신, 선전 뼈라 및 상담 등으로 이루어졌다(Fuchs, 1994: 11).

이에 오스트리아 의사로 안락사와 인체실험에 가담했던 그로스(H. Gross)는 '인종정책과 세계관(Rassenpolitik und Weltanschauung)'이라는 주제로 뮌헨의 한 연설에서 유전성질환법에 대한 저항은 더 이상 종교적이거나 윤리적인 차원의 관심이라기보다는 국가권력에 대한 저항과 내란죄로 간주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가톨릭계 기관에게는 개신교와는 달리 불임시술에 대한 실제적인 자료를 수집하거나 통계적인 조사도 허용되지 않았다. 반면에 공의(公醫)에 의하여 무자비하게 불임시술을 받고 있는 가톨릭계 시설로부터 무수한 불만발평이 쌓여갔으며, 수녀들은 자신들이 돌보는 장애아동들의 불임시술을 거절하거나, 간호사들은 불임시술대상자에 대한 신고 의무를 거부하기도 했다. 게다가 간병인들은 대상자들이 불임시술을 모면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기도 했다.

한편 1939년 9월 1일 독일은 폴란드를 기습적으로 침공함으로써 제2차 대전이 시작되었다. 교황 피

우스 11세는 이미 1937년 자신의 교황 서한인 “불타는 염려로”라는 제목으로 나치 통치가 몰고 올 위험들에 대해 지적하였다. 그러나 막상 1939년 9월 전쟁이 시작될 때 독일 주교들에 의한 특별한 공동 성명서는 발표되지 않았고, 수백만 명의 가톨릭 신자들도 다른 모든 독일인들과 마찬가지로 제2차 세계대전에 군인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또한 수천 개의 가톨릭교회나 수도원은 전쟁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사용되었다. 전체 수녀의 2/3가량이 전쟁 중에 간병인으로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다. 그러나 사실 전쟁 기간 동안에 교회에 대한 나치정권의 박해는 상당히 강화되었고, 강제 수용소에 수감된 가톨릭 사제 수는 1941년에 정점에 도달하기도 했다(Besier, 2004).

한편 전쟁 상황에서 교회와 국가 사이의 모순적인 장면도 있었는데, 정부는 전쟁에 있어서 가톨릭인들의 지지에 의존했으며, 가톨릭 신자들도 나치 이데올로기에 똑같이 동의를 하지 않지만 지원활동을 제공하고자 했다. 다른 한편으로 나치정부는 전쟁 중에 정적과 가톨릭교회에 대한 조치는 더욱 더 악화되었다. 예를 들어, 교회 신문의 금지는 종이 부족이라는 이유로 정당화시키거나 혹은 연합국의 공습이 증가함에 따라 오전 10시 이전에 교회 미사를 금지시켰다. 또한 군용 장비 제조에 필요한 금속 재료를 국방군에 공급하기 위해 가톨릭교회 종을 녹여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후 가톨릭계에서도 주교들은 전쟁이 끝난 직후에 잘못을 인정했는데, 그들은 1945년 8월 23일의 목회서신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였다.

처음부터 국가 사회주의의 이단성과 잘못된 길에 대해 심각하게 경고를 했어야 했다. 많은 독일인들, 우리 가톨릭에서도 마찬가지로, 민족사회 주의의 잘못된 가르침에 속아 넘어갔고,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에 대한 범죄에는 무관심하며 침묵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태도를 통해 나치의 범죄를 부추기고, 또한 많은 이들이 스스로가 범죄자가 되었다(Boehmisch, 2002: 69).

## 2) 개신교계의 입장과 저항

더군다나 가톨릭계의 주교들은 일찍부터 민족사회주의 사상을 ‘이단’으로 명확히 비판한 반면에, 개신교회에서는 대부분의 교인들이 민족사회주의 세계관을 기독교 신앙의 기본 체계인 교리와 일치시키려고 시도하였다. 여기에는 히틀러가 집권 후 당시 독일 제국의 개신교회를 분열시키고자 시도했기 때문이었다. 이에 친 나치정권은 1932년 튀링엔(Thuringen)에서 설립된 ‘독일 그리스도인(DC)’이라는 조직으로 민족사회주의 교회 회원들이 회합하여, 히틀러를 일종의 메시야로 여겼다. 그들은 인종주의이자 반유대주의자였고, 우상화 정책에 속하는 지도자 중심주의(Fuehrerprinzip)를 지지하며 복음을 민족사회주의 사상과 결합시키려는 한낱 나치세력의 추종세력에 불과했다. 그 뿐만 아니라 그들은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을 교회에서 배제시키는 캠페인을 실시함으로써 소위 ‘위험한 인종 혼합

(gefahrliche Rassenvermischung)'을 막고자 하였고, 유대인에 관한 글이라는 이유로 구약성경을 거부하였으며, 자신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돌격대(SA Jesu Christi)라 칭하였다. 그 당시 개신교의 목회자들 중에 약 20%가 나치당 당원이었다(May, 2000: 101).

한편 니뮐러 목사는 개신교 신학자이자 반 나치운동가로 1937년부터 1945년까지 강제수용소에도 수감되었고, 또한 1934년 3월에 '고백교회(Bekennende Kirche: BK)'의 설립과 깊은 관련이 있던 인물이었다. 그는 친 나치정권의 '독일 그리스도인'에 맞서 개신교회를 지키기 위해 동지들과 함께 1933년 9월 21일 고백교회의 뿌리에 해당하는 '목회자비상협회(Pfarrernotbund)'를 비텐베르크(Wittenberg)에 조직하였다. 여기에는 개신교 목회자의 1/3인 7천여 명이 가입하였으며, 그들은 신앙의 자유를 수호하고, 구약과 신약의 통일성을 고수하고자 하였다. 결국 이 단체의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이 나중에 '고백교회'로 발전하게 되었다. 고백교회의 목사들은 민족사회주의자들에게 복종하는 것을 거부하였고, 특히 그들은 교회의 모든 직책에서 유대인 등 비아리아 인을 배제하는 차별 조항을 교회에 적용하는 규정도 반대하였다.

한편 민족사회주의자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은 '독일 그리스도인'들은 1933년 7월 23일에 전국 2/3의 다수로 제국 차원의 교회 선거에서 승리를 거두었고, 많은 지역 교회와 위원회에서 자신들의 지지자들에게 지도자 직책을 부여하고 종교와 정치를 통제하며 획일화하기 시작하였다. 또 같은 해 11월에 베를린의 한 집회에서는 구약 성경을 '유대인 구약 성경'으로 간주하여 거부하였다. 특히 1934년 3월에는 개신교 목사인 그뤼너(H., Grüner)가 히틀러를 예수의 후계자로 선언하기도 했다(Niesel, 1978).

이에 독일의 기독교회조차 독재국가에 무비판적으로 종속되는 것에 반대하며 바르트(K. Barth)와 본회퍼 목사 등이 1934년 5월 31일 '바르멘 신학선언(Barmer Theologische Erklärung)'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1936년 봄 고백 교회가 분열되어 루터교리를 중심으로 한 그룹은 소극적인 저항세력으로 교회의 자유를 보장받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통치자들에게 순복하고자 나치 정권과 일정한 타협을 모색하였다. 하지만 니뮐러 와 본회퍼 목사 등의 그룹은 법률 위반을 하는 독재정권의 이념이나 그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저항할 것을 천명하였다(Honecker, 1995: 20-21).

이에 나치정권은 비밀경찰을 통하여 교회 예배 감시를 강화하고 설교나 집필 금지 등 박해는 점점 심해지는 중에 1937년 고백 교회의 첫 번째 회원이자 기독교 법률가인 바이슬러(F. Weisler)가 인종주의, 강제 수용소 및 교회에 대한 억압 등을 비판하여 작센하우젠 강제 수용소에서 순교하게 되었다. 그리고 슈나이더(P. Schneider) 목사는 나치정권의 세계관에 대하여 타협 없이 거부하고, 핍박받는 유대인들과 연대활동을 하다가 부헨발트 강제수용소 독방에 수감되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함으로써 '부헨발트의 설교가'라고 알려졌다. 그는 결국 1939년 7월 18일 그곳에서 살해되었는데, 본회퍼 목사는 그를 두고 민족사회주의에 항거한 첫 번째 기독교 순교자라 일컬었다. 이처럼 '독일 그리스도인(DC)'단체에 맞

서 많은 '고백교회(BK)'의 교인들이 결집하여 나치정권의 테러 정치에 저항하였는데, 다수가 체포되었고, 일부는 추방을 당하거나 목사의 직분을 박탈당하여 설교금지와 출판도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1938년 이후부터는 사실 히틀러에게 충성 맹세를 한 목사들도 적지 않았다(Schneider, 1986).

히틀러의 유전성 장애인에 대한 강제적인 불임시술 정책에 대하여 개신교 측에서도 기본적으로는 거부적 입장을 보였다. 예를 들어, 개신교 신학자인 알트하우스(P. Althaus)는 이 정책을 날카롭게 비판했는데, 근본적으로 '가치' 혹은 '열등' 등에 대한 가르침을 반대하였다. 또한 베를린 근교의 장애인 및 노인시설의 책임자였던 브라우네 목사(P. G., Braune)는 1933년 국내선교의 인종우생학 위원회와 그 회원들과는 반대 입장에서 노골적으로 국가적인 강제불임시술이나 안락사를 지지하지 않았다.

그러나 개신교계측에서도 독재정권의 전면에서 이를 지지한 것을 볼 수 있다. 1931년 1월 북 헤센지역의 트라이자(Treysa)에서 국내선교 중앙위원회(Central-Ausschuss fuer Innere Mission) 전문회의가 열려 인공불임시술은 종교적으로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반드시 정당하다고 표명하며, 사회적인 열등함이나 돌봄이 필요한 유전적인 소인을 가진 자들은 가능한 생식활동으로부터 제외시킬 것을 주장하였다. 아울러 이 단체의 보건위생부 책임자이며 사회 위생학자인 하름젠(H. Harmsen) 박사는 인공 불임시술에 대해서 머뭇거리는 시설장들을 비난하며, 국가에 범죄자들과 성가신 존재들을 없애는 권한을 부여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어서 1931년 5월에 헤센 주의 트레이자 지역의 개신교 복지사업본부(Diakoniezentrum)에서 독일 기독교 국내 선교 기관의 책임자들을 중심으로 '우생학 관련 개신교 전문회의(Evangelische Fachkonferenz fuer Eugenik)'가 개최되었는데, 그 당시 기독교 단체는 실제로 나치정권이 요구한 장애인 불임시술에 대해서는 이른바 '트레이자 선언'을 통하여 합의된 반면에, 안락사에 대해서는 논쟁거리로 남겨두었다(Mehlhausen, 1999).

이어서 1935년의 유대인 권리 박탈법인 뉘른베르크법, 1938년 회당, 가게 및 민가를 파괴하거나 체포, 구금 및 살해한 유대인 박해사건이나 제2차 대전 중에 유대인 강제추방 및 대량학살 등에 직면하여 기독교계에서 나치정권에 공식적인 항의나 혹은 유대인과의 연대활동은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이는 전통적으로 루터의 반유대적 입장과 깊은 관련이 있는데, 이에 따라 민족사회주의자들의 유대인 탄압 정책을 동의하거나 이에 적극적인 저항을 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다. 그 당시 독일에는 약 12만 명의 유대계 그리스도인이 있었는데, 그들은 개신교회에서 거의 보호를 받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나치의 이데올로기에 많은 교회 지도자와 목사들도 동의를 했고, 또 친 정부 기독교단체였던 '독일 그리스도인(DC)'들도 민족주의자들과 하나로 결합된 조직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사실 '고백교회'도 유대인들의 핍박이나 차별에 대해서 오랫동안 거의 침묵했는데, 이들도 사회 속에서 유대인의 지위나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을 차별적으로 규제할 권리를 국가에 부여하기도 했다. 유대인 출신의 사람들은 진정한 독일인도 아니고 진정한 기독교인도 아니었기 때문에 개신 교회는 당시 나치정권의 박해에 대해 거의 침묵으로

일관하였던 것이었다. 그러다가 1942년부터 비로소 유대인 대량학살,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 살인과 추방에 대한 저항을 위하여 교회의 청원과 종교회의가 있었지만, 이미 1942년과 1943년에 유대인 강제 추방과 대량 학살행위가 벌써부터 자행되었다(Reichel, 2015: 100).

나치정권은 1939년부터 이른바 ‘살 가치가 없는 목숨’으로 본 장애인과 정신질환자에게 안락사를 자행하였다. 1931년 5월에 헤센 주의 트레이자에서 독일 개신교 국내선교의 시설장들이 ‘우생학을 위한 개신교 전문회의’에서 장애인에 대한 불임시술 요구에 대해서는 소위 ‘트레이자 선언’으로 합의했지만, 안락사 문제는 논쟁의 여지를 두었다. 그러나 1933년 7월 14일 맹, 농, 뇌전증, 알콜중독, 지체장애, 정신장애 등 장애인에 대한 강제적 불임시술이 자행되었다. 또한 1940년에는 이러한 수많은 장애인들이 결국 독가스, 약물중독, 구타나 아사 등으로 참혹하게 살해되었다.

사실 나치정권의 안락사 정책에 많은 기독교 복지시설이나 관계자들의 협력과 지지도 있었는데, 예를 들면 라인란트 팔츠 주의 쇼이에른에 있는 기독 치료교육 및 요양시설의 책임자인 토트(Karl Todt)는 다른 개신교 복지시설장들과 마찬가지로 ‘차세대 유전성 질병예방법’을 적극 지지하기도 했고, 후에 이 지역의 기독교 시설들은 강제수용소로 가는 과정에서 중간기착지로도 제공되기도 했다. 작센-안halt트중부 지역인 베른부르크 주립병원 및 요양시설에서만 75명의 장애인들이 1940년과 1941년에 3×4 m 크기의 가스실에서 나체 상태로 독가스로 살해당했는데, 그 때 같은 건물의 개신교 사회사업 직원들은 나치정권의 악행에 공개적인 항의도 없이 자신들의 업무에만 열중하였다(Sandner, 2003).

또한 바이에른 주의 개신교 노이엔데텔자우 요양원의 주치의이며 루터파 기독교인인 뵉크(R., Boekh) 박사는 토론회에서 ‘어떤 사람을 멸절시켜야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단지 창조주로부터 불리움을 받고 손에 권력을 가진 사람의 전적인 권한이다. 이는 오직 지도자(히틀러)만이 할 수 있고, 또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수천 명의 장애인들에게 이미 안락사 대상으로 사형선고를 내렸던 셈이었다. 그리고 개신교 루터파 교인이며 간호사였던 크나이슬러(P. Kneissler)의 경우에는 전쟁 중에 안락사 시설에서 수천 명의 장애인들을 독주사로 살해하는데 가담하였다. 그럼에도 그녀는 1947년 법정에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 변명하며 정당화하기도 했다(Reichel, 2015: 106).

게다가 1939년 시작된 제2차 세계 대전이 사실 독일 기독교회들은 만세를 부르지는 않았지만, 독일의 대형교회들도 전쟁에 대한 반대 항의는 거의 없었고, 단지 소수 성직자만이 반대 목소리를 냈을 뿐이었다. 본회퍼 목사의 말에 의하면 그들은 이 악행을 전혀 저지하지 않았으며, 제1차 대전과 같이 신·구교 신학자들도 대부분 전쟁에 침묵하거나 심지어 독일 복음주의 교회(Deutsche Evangelische Kirche: DEK) 사무국의 고위 관계자는 지지성 발언을 하기도 했다. 그는 목숨을 바쳐 조국을 위해 싸우는 것은 의무이며, 히틀러가 전쟁 지도자로서 신의 권위를 부여받았다고 선동하였다. 히틀러가 권력을 잡은 후 분열된 독일 개신교회는 전쟁 발생 후 공식적인 반 히틀러 저항운동은 거의 없었다. 그리고

1943년에 이미 나치는 수도원 등 약 3,400 개의 교회 시설을 군사용으로 사용하였고, 20,000명 이상의 성직자들이 전투중인 국방군 부대에서 주로 간병인으로 근무하기도 했다(Meier, 2001: 29-30).

그러나 개신교회에 탄압 중에서도 본회퍼 목사는 1944년 7월 20일 히틀러 암살시도 실패 후 체포되어 1945년 4월 9일 플로센뷔르크 강제수용소의 교수형으로 순교를 맞이했다. 독일개신교회는 1945년 10월 슈투트가르트 참회선언(Stuttgarter Schulderklaerung)에서 처음으로 민족사회주의 정권에서의 공동책임을 공식적으로 고백했다(Brakelmann, 2001).

## V. 시사점 및 결론

민족사회주의 정권은 인종주의와 사회적 다윈주의 사상을 중심으로 강제적 불임시술, 유대인 학살, 장애인 안락사 및 제2차 세계대전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 그와 관련하여 당시 기독교계의 입장과 태도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여기에서 도출된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세 가지 시사점을 소고하고자 한다.

첫째, 히틀러의 민족사회주의정권이 자행한 정책들은 그들의 정치이념 속에 있는 인간관에서 출발한다. 나치정권은 인간의 기본적인 존엄성과 평등성을 무시하고 적대적이고 차별적인 인간관을 지향하였는데, 즉 아리아(게르만)인, 신체와 정신적인 건강, 민족사회주의 이념을 지지하는 자들만 인정하였던 것이다. 반대로 유대인 등 타민족, 장애인이나 정신 질환자, 정적(政敵) 등은 멸절의 대상으로 간주하였다. 이에 독일은 1949년 5월 23일에 공포된 기본법 제1조 1항에 ‘인간의 존엄성은 저촉될 수 없다. 이것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이 모든 국가기관의 의무이다’라고 인간의 존엄성을 최우선으로 밝히고 있다. 아울러 1994년에는 기본법 제3조 3항에 기존의 성별, 가문, 인종, 언어, 고향과 출신, 신앙, 정치적 신념에 따른 불이익이나 특혜 금지 외에 특별히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차별금지 조항이 삽입되기도 했다.

한편 인간의 존엄성 근거를 칸트(I. Kant)는 인간의 이성적 능력이나 도덕적 자율성에서 찾는데, 성경적인 입장은 근본적으로 기독교적 인간상의 핵심 요소가 바로 인간의 존엄성이다. 인간은 창조과정서부터 이미 하나님의 형상(Image of God, 창 1:27)을 따라 다른 만물과는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존재이며, 하나님의 창조세계에 대한 문화명령(cultural mandate, 창 1: 28)의 수권자(受權者)이다. 더군다나 인간은 죄로 타락한 존재(롬 3:9)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요 3:16)을 필요로 하는 유일한 존재이다.

히틀러 정권은 유대인과 이른바 ‘살 가치가 없는 목숨’으로 분류된 병약자의 삶의 존재 의미를 부정하고 기본적인 생명권을 박탈하는 범죄를 저질렀던 것이었다. 이러한 왜곡된 사상의 기원은 아마도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인 아돌프 요스트(Adolf Jost)일 것이다. 그는 학습과 기억을 위한 분산형 독서

법인 ‘요스트의 법칙’ 뿐 아니라, 특히 독일에서 안락사(조력자살)에 토론에서 역사적인 출발점이었던 1895년의 53쪽짜리의 ‘죽음에 대한 권리(Das Recht auf den Tod)’로 잘 알려졌다. 그의 아버지는 고통에 자살을 하였는데, 그의 이별편지에서조차 즐거운 삶이 아니면 자살을 해도 된다고 아들에게 권유했다고 한다. 이에 요스트는 죽음에 대한 권리나 개인의 죽음이 자신이나 사회에 미치는 의미에 대해서 질문을 제기하면서 난치성의 정신 또는 신체적 질병의 문제를 다룬 것이었다. 그는 독일 철학자 니체(F. Nietzsche)와 오스트리아 작가이자 정치가였던 폰 헬렌바흐(L. B. von Hellenbach), 특히 스코틀랜드 철학자이며 역사학자인 흄(D. Hume)의 공리주의에 의지하여 요스트는 기쁨이나 고통과의 상호 관계를 통해 인간생명의 가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인간 생명의 가치는 순수하게 자연적인 관점에서 볼 때 두 가지 요소로만 구성 될 수 있다. 첫 번째 요소는 자기 자신과 관련된 삶의 가치, 즉 그가 경험해야 할 기쁨과 고통의 합계이다. 두 번째 요소는 개인이 사회공동체에 미치는 이익과 손해의 합이다...(중략)...인간 생명의 가치는 죽음의 난치성 질환의 경우와 같이 고통이 크면 제로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죽음 자체는 제로의 가치를 나타 내기 때문에 부정적인 삶의 가치보다 여전히 낮다(Zimmermann-Acklin, 2002: 92).

이러한 요스트의 인간관은 1920년 4월에 호헤(Hoche)와 빈딩(Binding)의 ‘살 가치가 없는 목숨의 멸절에 대한 허용’이라는 책에 영향을 주었고, 이는 결국 히틀러 정권의 장애인 대량학살의 실현에 이론적 근거로 작용하였다.

우리나라도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9년 12월말 기준으로 국내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서명한 사람이 53만 3천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제도가 도입된 2018년 9만 1200여명이었던 비해 1년 새 무려 5배 이상 늘어났다(<http://www.hani.co.kr>). 그리고 OECD 평균의 2배가 넘는 우리나라의 자살율(<https://newsis.com..>)이나 출산율은 전 세계적으로 최저인데 반해 낙태율은 최상위(<http://www.kgnews.co.kr>)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히틀러의 장애인 강제적 안락사, 우리나라의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 작성 증가율이나 높은 자살률 및 인공임신중절 건수는 이유나 과정 및 방법 등에서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모두가 공통적으로 생명윤리와 관련된 문제이다. 이러한 현상들이 결과적으로는 여전히 요스트나 민족사회주의자들이 가진 인간관과 결코 거리가 멀다 볼 수 없을 것이다. 인간의 존재 의미나 존엄성 여부는 조건부나 상대적으로나 또는 합리적, 생산적, 경제적 기준에서 더하기와 빼기를 통하여 쉽게 결정지을 그런 가벼운 존재가 아니다. 만일 이러한 가치관이 사회뿐 아니라 학교와 심지어 교회에서조차 만연한다면 심히 염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히틀러의 망령의 역사는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점을 깊이 명심해야

할 것이다.

둘째, 교회와 국가 혹은 종교와 정치 간의 올바른 관계의 정립은 예나 지금이나 기독교회와 기독교인들의 고유한 과제와 사명을 수행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사실 이 관계는 시대적으로 각각의 세계관이나 권력 관계에 따라 달랐지만, 계몽주의 시대 이후로 기독교의 문화적 지배력은 서서히 영향력을 잃기 시작하였다. 특히 프랑스 혁명을 계기로 법치 국가 체제가 들어서면서 교회와 국가는 분리되기에 이르렀는데, 특히 보편적인 인권을 기초로 개인적 신앙의 자유와 교회조직의 자유를 보장함에 따라서 교회의 국가론의 방향도 새롭게 바뀌게 되었다. 인류사에서 신앙과 정치 관계는 때로 전쟁의 원인이 되고, 국가의 복지나 혹은 고통, 심지어 교회 분열이 나타나기도 했다.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기독교인들의 세속적 시민권과 하늘의 시민권, 하나님의 왕국과 세상왕국, 정치참여 문제 등 국가와 교회 사이의 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은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특히 홀트하우스(Holthaus, 2009: 55-62)에 따르면, 역사적으로 국가와 교회 간의 상호관계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입장들을 볼 수 있다. 먼저 교회에 의한 국가통치 형태, 즉 ‘정치화된 믿음’인데, 이는 종교적 중립을 보이는 현대 법치 국가에서는 불가능하지만 역사에서 오래 존재하였다. 특히 로마 교회 형태에서 교회는 국가 위에서 정책을 결정했는데, 이는 성경적인 원칙이 세속적 국가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기원후 4, 5세기부터 영적 통치자는 세속 통치자 위에 서서 소위 ‘하나님의 왕국’이 ‘세상의 왕국’을 지배하였다. 로마 황제 테오도시우스(Theodosius)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았을 때 교회는 정치와 국정 의사 결정자들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였다. 동시에 이 시대는 교황권 신장 등 종교적 욕망으로 인해 십자군 전쟁이나 타인종과 비 기독교인들에 대한 식민주의적 정책 등 많은 인류의 비극을 잉태하기도 했다.

이어서 ‘박해받는 믿음’으로 국가권력이 교회를 통치하는 형태를 말한다. 교회 역사 중에 처음 3세기 동안, 즉 기독교 역사의 초기에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제국에서 소수에 해당하였다. 때로 그들은 당시 지배적인 정치이념의 동참을 거부하여 잔인한 박해를 받았다. 그들은 황제를 위한 희생과 충성을 신성 모독으로 보았고, 신앙의 이유로 시대정신에 대한 순응을 수용할 수 없었다. 로마 국가는 카이사르(Caesar)라고 불리는 가장 높은 주권자에 복종을 요구함으로써 갈등은 불가피한 일이었다. 오늘날도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신앙으로 박해나 심각한 불이익에 직면해 있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러한 비극적 현상은 주로 전체주의 국가에서 보이는데, 종교와 믿음을 위협이나 경쟁으로 여기고 이의 확산이나 발전을 막고자 한다. 특히 20세기에는 파시즘과 공산주의라는 두 가지 이념이 기독교를 공개적으로 박해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관계 속에서 교회는 정치에 거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다.

또 다른 교회-국가 간의 관계 유형은 ‘분리된 믿음’인데, 즉 기독교인들이 국가와 정치에 대하여 의식적으로 거리를 두는 형태이다. 이는 정치를 세속적인 사업 정도로 간주하여 세상으로부터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관점은 한편으로는 정치에 대한 교회의 간섭이 세속적이라고 보는 동시에 교회가 국가로부터 통제되는 어떤 형태도 원칙적으로 거부하며, 또한 반대로 정치영역에 교회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입장이다. 기독교 역사에서 특히 종교개혁자들은 교회의 정치적 행동을 단호히 거부하였는데, 교회 공동체는 국가와 무관하고, 국가와 교회는 결코 섞여서는 안 된다는 사상이 19세기 부흥운동시기까지 있었다. 이는 박윤선(1989: 153-154)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3장 2조와는 반대로 기독교인들은 국가공무원직을 비롯하여 맹세나 서약, 전시근무, 군목(軍牧) 및 투표행위 등을 금지하는데, 이러한 비현실적인 입장은 일부 보수적인 교회나 종말론적 교육을 특히 강조하는 종교운동에 여전히 퍼져 있다.

이어서 ‘무관심한 믿음’으로 기독교인들이 국가나 정치에 무관심하거나 더 나아가 무지한 태도를 말한다. 이는 앞서 세 번째 시각과 차이점은 정치적 협력 관계에 의도적 거부가 아니라, 오히려 냉담과 무관심이 지배적인 것이다. 즉 정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혹은 그곳에 누가 책임이나 결정권을 가지는지에 대하여 한마디로 관심이 없으므로 현실적인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는 거의 모른다. 그들은 종종 로마서(13: 1)나 베드로 전서(2: 13)를 근거로 국가가 이미 알아서 잘할 것이라는 것과 우리는 그냥 따르면 된다는 식의 인상이 매우 강하다. 그리고 소위 ‘거룩한 배타성’에서 단지 교회 일이나 개인적인 경건성에만 주로 집중하는 경향성을 보인다. 이는 또한 우리의 삶에서 영적인 것이나 하나님의 왕국만이 모든 것인 반면에 지상의 나라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간주하여 기독교인들이나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는 기도할 수 있지만, 교회 밖의 사람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는 형식적이거나 소극적인 수밖에 없다. 아울러 이러한宿命론적인 태도는 사회 속에서 기독교인들의 진실한 목소리를 들을 수 없기에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인 가치들이 변두리로 내 길 위험성이 매우 큰 것이다.

마지막으로 소위 ‘변혁적인 믿음’인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영역에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형태이다. 이러한 입장은 우선 교회와 국가는 각각 분리되어 있는 별개의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전제로 하는데, 즉 믿음은 주로 영원한 구원, 정치는 이 세상의 복지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간의 구원은 세계의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 모든 역사의 중심에 있다는 것이다. 정치적 규칙은 교회 공동체의 그것과는 전혀 다르며, 신앙과 정치는 서로 분리되어야 하고, 정치와 복음은 혼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만일 정치를 믿음과 혼동하는 사람들은 국가를 압도하여 결국 전체주의적인 이념으로 나아가게 되고, 반대로 믿음을 정치로 착각하는 자는 복음을 없애고 그 자리에 전체주의적 이념으로 된 교회로 채우게 된다. 현실적으로 믿음은 정치와 공통적인 교차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본질적으로는 이 세상이 아니라 내세의 왕국에 속한다. 하나님의 원래 정하신 목표는 이 세상에 대한 구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행복이나 복지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즉 믿음을 우리 삶의 모든 현실로부터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는 그분이 스스로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의식적으로 이 세상에 인간의 형상으로 오신 분이시다. 그리스도는 그 시대에 잃어버린 영혼들뿐만 아니라 병들고 썩어 가고 불안한 영혼들에 대해서도 애통해 하시고 치료해 주셨다. 바울도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주장하며 아테네의 지적 엘리트들과 논쟁하며 공개적으로 그 당시 지도자들을 엄하게 훈계하기도 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시민으로서 항상 정치적인 존재라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은 원하던 원치 않든지 사실 궁극적으로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지만, 현실적으론 여전히 이 세상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산상 수훈에서 제자들에게 ‘이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마 5: 16)’라고 언급하셨다. 이것이 바로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이 사회에 들어가서 선한 영향력을 통하여 사회를 서서히 변혁하는 일일 것이다.

특히 오늘날 생명 존중, 결혼과 가족, 왜곡된 성(性)이나 종교의 자유 등 중요한 가치들이 큰 위협 앞에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지만, 이로 인해 포기하기 보다는 오히려 이 세상을 위하여 그리고 이 세상 안에서 용기 있는 헌신과 참여가 요구되는 것이다. 물론 세상의 복지를 위한 노력이 세상의 구원을 위한 노력보다 우선해서도 안 될 것이다. 그리고 모든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이 낙원 같은 상태가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지 우리의 능력 밖인 것임을 이미 알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아 존엄성을 부여 받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들의 고통을 경감해 주거나 사회적 부당함과 싸워야 할 책임에서 면피될 수는 없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자신의 믿음을 부정하지 않은 채 일상적인 정치적 사안에 대하여 기꺼이 관심과 참여로 헌신할 준비가 된 깨어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필요한 시대이다.

셋째, 국가 권력의 불법적 혹은 반기독교적인 불의한 정책이나 가치관에 대하여 교회나 기독교인들의 자세와 반응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집권세력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거나 파괴하려고 하는 경우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국민이 공권력에 대하여 반대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를 저항권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국민저항권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독일은 기본법 제20조 ‘(4) 헌법적인 질서를 제거하려고 감행하는 자에 대하여 만일 다른 구제책이 불가할 경우에는 모든 독일인들이 저항권을 가진다’라고 보장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이미 고찰한 바와 같이 히틀러의 왜곡된 정치이념과 정책에 대하여 기독교회나 기독교인들 간에도 다양한 태도를 볼 수 있었다. 비록 소수이기는 하지만 개인적 혹은 집단 형태로 저항하기도 했고, 다른 한편으로 설교나 강론, 삐라살포, 항의서신 발송, 정치적인 탄압을 받는 자들을 보호하거나 돕는 활동을 통해 항거하기도 했다. 심지어 히틀러에 대한 직접적인 암살시도까지 함께 실행하는 등 저항의 정도에서도 소극적인 대응에서부터 매우 적극적인 방법을 볼 수 있다.

특히 국가적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를 결코 앞설 수 없고, 더군다나 권력자들의 부당한 명령이나 지침

은 더욱 더 그렇다 할 것이다. 신약의 사도행전(행 4: 19-20)에서 예수그리스도의 부활과 구주되심을 증거 하는 일을 금지시키는 관원들에 대하여 베드로와 요한은 단호하게 거부하였다. 그러나 폭력을 사용하여 권력자의 불의에 항거하는 경우에 성경은 대개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 좋은 한 예들이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잡히실 즈음에 한 제자의 폭력적 행위를 금하신 것(마 26: 52)이나, 사울에 대한 다윗의 태도(삼상 26: 10)에서 알 수 있다. 따라서 교회나 기독교인들은 적극적으로 의를 행하며, 불의에 참여하지 않는 용기를 가지고 최후의 권위이며, 권위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순종함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아울러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롬 12: 21)는 말씀과 같이 세속적 인본주의자들의 모습과는 달리 선으로 악을 이기는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양승훈, 1999: 214-226).

결론적으로 흔히 교회는 영원한 진리의 등대이며,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에서 어둠을 밝히는 빛이며 썩음을 방지하는 소금의 사명을 부여받은 자들이다. 인류역사 중에 모든 시대와 사회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치관과 이념은 여전히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도전하고 공격을 하고 있다. 우리의 믿음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삶의 모든 분야에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에 교회나 기독교인들은 외적으로는 올바른 기독교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부당하고 정의롭지 못한 권력자와 가치관들을 늘 경계하며 때론 엄중히 저항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 내적으로는 말씀과 기도로 항상 깨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 사회에서 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평생을 살아가는 믿음과 실천의지가 요구된다 할 것이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엡 6: 12-13).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 참고문헌

김기홍(2018). **히틀러와 장애인**. 서울: 집문당.

[Kim, K. H.(2018). *Hitler and Disabled Person*. Seoul: Jipmundang.]

박윤선 역(1989).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The 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 서울: 영음사.

[Park, Y. S.(1989). *The 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 Seoul: Yeongeumsa.]

양승훈(1999). **기독교적 세계관**. 서울: 도서출판 CUP.

[Yang, S. H.(1999). *Christian Worldview*. Seoul: CUP.]

Aly, G.(1989). *Aktion T4: 1939-1945. Die "Euthanasie"-Zentrale in der Tiergartenstrasse 4*. Berlin: Edition Hentrich.

[Aly, G.(1989). *Action T4: 1939-1945. The "Euthanasia" Center at Tiergartenstrasse 4*. Berlin: Edition Hentrich.]

Bajohr, F. & Loew, A.(2015). *Der Holocaust: Ergebnisse und neue Fragen der Forschung*. Frankfurt: Fischer.

[Bajohr, F. & Loew, A.(2015). *The Holocaust: Results and New Questions of Research*. Frankfurt: Fischer.]

Benzenhoefer, U.(2006). *Zur Genese des Gesetzes zur Verhütung erbkranken Nachwuchses*. Muenster: Klemm & Oelschlaeger.

[Benzenhoefer, U.(2006). *On the Genesis of the Law for the Prevention of offspring with inherited disorders*. Muenster: Klemm & Oelschlaeger.]

Besier, G.(2004). *Der Heilige Stuhl und Hitler deutschland. Die Faszination des Totalitaeren*. Muenchen: Deutsche Verlags-Anstalt.

[Besier, G.(2004). *The Holy Chair and Hitler Germany. The Fascination of the Totalitarian*. Muenchen: Deutsche Verlags-Anstalt.]

Boehmisch, F.(2002). *Das Schuldbekenntnis der Katholischen Kirche*. In: Lebendige Seelsorge. Band 53. Wuerzburg: Echter.

[Boehmisch, F.(2002). *The Catholic Church's Confession of Guilt*. In: Living pastoral care. Volume 53. Wuerzburg: Echter.]

- Brakelmann, G.(2001). *Evangelische Kirche und Judenverfolgung. Drei Einblicke*. Darin: Kirche und die Frage der Mitschuld 1945-1950. Waltrop: Hartmut Spenner Verlag.
- [Brakelmann, G.(2001). *Evangelical Church and Persecution of Jews. Three insights*. In it: Church and the Question of Complicity 1945-1950. Waltrop: Hartmut Spenner Verlag.]
- Cartarius, U.(1984). *Opposition gegen Hitler. Deutscher Widerstand 1933-1945*. Berlin: Siedler.
- [Cartarius, U.(1984). *Opposition to Hitler. German resistance 1933-1945*. Berlin: Siedler.]
- Feldmann, C.(1996). *Wer glaubt, muß widerstehen-Bernhard Lichtenberg-Karl Leisner*. Freiburg: Herder.
- [Feldmann, C.(1996). *Those who believe must resist-Bernhard Lichtenberg-Karl Leisner*. Freiburg: Herder.]
- Fieber, H.-J.(2006). *Widerstand in Berlin gegen das NS-Regime 1933 bis 1945. Ein biografisches Lexikon*. Berlin: Trafo Verlag.
- [Fieber, H.-J.(2006). *Resistance in Berlin against the Nazi regime from 1933 to 1945. A biographical Lexicon*. Berlin: Trafo Verlag.]
- Fuchs, K.(1994). *Pius XI*. In: Biographisch-Bibliographisches Kirchenlexikon(BBKL). Band 7, Herzberg: Bautz.
- [Fuchs, K.(1994). *Pius XI*. In: Biographical Bibliographic Church Encyclopedia(BBKL). Volume 7, Herzberg: Bautz.]
- Gailus, M.(2001). *Protestantismus und Nationalsozialismus. Studien zur nationalsozialistischen Durchdringung des protestantischen Sozialmilieus in Berlin*. Koeln: Boehlau Verlag.
- [Gailus, M.(2001). *Protestantism and National Socialism. Studies on the National Socialist penetration of the Protestant social milieu in Berlin*. Koeln: Boehlau Verlag.]
- Gerhardus, S. & Mensing, B.(2007). *Namen statt Nummern. Dachauer Lebensbilder und Erinnerungsarbeit*. Leipzig: Evangelische Verlagsanstalt.
- [Gerhardus, S. & Mensing, B.(2007). *Names instead of numbers. Dachau life pictures and memory work*. Leipzig: Evangelische Verlagsanstalt.]

- Graml, H.(1994). *Widerstand im Dritten Reich-Probleme, Ereignisse, Gestalten*. Frankfurt/M.: Fischer TB.
- [Graml, H.(1994). *Resistance in the Third Reich-problems, events, shapes*. Frankfurt/M.: Fischer TB.]
- Holthaus, S.(2009). Christen und Politik. Das Verhaeltnis von Kirche und Staat in Geschichte und Gegenwart. **Bibel und Gemeinde** 109, Band 3, 55-62.
- [Holthaus, S.(2009). Christians and Politics. The Relationship between Church and State in Past and Present. **Bible and Church** 109, volume 3, 55-62.]
- Honecker, M.(1995). *Die Barmer Theologische Erklarung und ihre Wirkungsgeschichte*. Wiesbaden: Springer VS.
- [Honecker, M.(1995). *The Barmen Theological Explanation and its History of Effect*. Wiesbaden: Springer VS.]
- Iber, H.(1987). *Christlicher Glaube oder rassischer Mythos. Die Auseinandersetzung der Bekennenden Kirchemit Alfred Rosenbergs "Der Mythus des 20. Jahrhunderts"*. Frankfurt/M.
- [Iber, H.(1987). *Christian belief or racial myth. The Confessing Church's Confrontation with Alfred Rosenberg's "The Myth of the 20th Century"*. Frankfurt/M.]
- Immenkoetter, H.(1994). *Die katholische Kirche und der Nationalsozialismus. Verurteilung-Vertrauen- Verweigerung*. In: Johannes Hampel(Hrsg.): *Der Nationalsozialismus*. Band I. Machtergreifung und Macht-sicherung 1933-1935(=Veroeffentlichungen der Bayerischen Landeszentrale fuer politische Bildungsarbeit. Reihe A, Nr. 72). 207-253.
- [Immenkoetter, H.(1994). *The Catholic Church and National Socialism. Condemnation trust-denial*. In: Johannes Hampel (ed.): *National Socialism*. Volume I. Assumption of power and securing power 1933-1935(=publications of the Bavarian State Center for Political Education. Series A, No. 72). 207-253.]
- Knopp, G. & Glueckert, A.(1999). *Hitlers Helfer. Taeter und Vollstrecker. Vollstaendige Taschen-buchausgabe*. Muenchen: Goldmann.
- [Knopp, G. & Glueckert, A.(1999). *Hitler's helper. Perpetrators and executors. Complete paper- back edition*. Munich: Goldmann.]

- May, G.(2000). *Schuldbekennnisse und Vergebungsbitten*(=Brennpunkt Theologie. Band 5). Stuttgart: Sarto.
- [May, G.(2000). *Admissions of Guilt and Requests for forgiveness*(=focus on theology, Volume 5). Stuttgart: Sarto.]
- Meier, K.(2001). *Kreuz und Hakenkreuz. Die evangelische Kirche im Dritten Reich*. 2. Auflage. Muenchen.
- [Meier, K.(2001). *Cross and swastika. The Evangelical Church in the Third Reich*. 2nd Edition. Munich.]
- Mehlhausen, J.(1999). *Die Konvention von Treysa. Ein Rueckblick nach 40 Jahren*. In: Ders.: Vestigia Verbi. Aufsätze zur Geschichte der evangelischen Theologie. Berlin/New York.
- [Mehlhausen, J.(1999). *The Treysa Convention. A look back after 40 years*. In: Ders.: Vestigia Verbi. Essays on the history of Protestant theology. Berlin/New York.]
- Michalka, W.(2002). *Deutsche Geschichte 1933-1945. Dokumente zur Innen-und Außenpolitik*. Frankfurt/M: Fischer-Taschenbuch-Verlag.
- [Michalka, W.(2002). *German history 1933-1945. Domestic and Foreign Policy documents*. Frankfurt/M: Fischer-Taschenbuch-Verlag.]
- Mommsen, H.(2000). *Alternative zu Hitler. Studien zur Geschichte des deutschen Widerstandes*. Muenchen: Beck.
- [Mommsen, H.(2000). *Alternative to Hitler. Studies on the History of German Resistance*. Munich: Beck.]
- Niesel, W.(1978). *Kirche unter dem Wort. Der Kampf der Bekennenden Kirche der altpreuussischen Union 1933-1945*. Goettingen: Vandenhoeck und Ruprecht.
- [Niesel, W.(1978). *Church under the Word. The Struggle of the Confessing Church of the Old Prussian Union 1933-1945*. Goettingen: Vandenhoeck and Ruprecht.]
- Reichel, H.(2015). *Theologie als Bekenntnis: Karl Barths kontextuelle Lektüre des Heidelberger Katechismus*. Goe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 [Reichel, H.(2015). *Theology as Confession: Karl Barth's Contextual Reading of the Heidelberg Catechism*. Goe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Roth, A.(2008). *Das Reichskonkordat vom 20. Juli 1933 unter besonderer Beruecksichtigung seiner historischen Vorgaenger in 800 Jahren Deutscher Geschichte*. Muenchen 1933, Neuauflage. Bremen.

[Roth, A.(2008). *The Reich Concordat of July 20, 1933 with special Consideration of its historical Predecessors in 800 years of German History*. Munich 1933, new edition. Bremen.]

Sandner, P.(2003). *Verwaltung des Krankenmordes-Der Bezirksverband Nassau im Nationalsozialismus*. In: Historische Schriftenreihe des Landeswohlfahrtsverbandes Hessen-Hochschulschriften. Band 2, Giessen: Psychosozial-Verlag.

[Sandner, P.(2003). *Administration of the Sick Murder-The District Association Nassau under National Socialism*. In: Historical series of publications by the State Welfare Association of Hessen University Journal. Volume 2, Giessen: Psychosozial-Verlag.]

Schneider, U.(1986). *Die Bekennende Kirche zwischen "freudigem Ja" und antifaschistischem Widerstand*. Kassel: Brueder-Grimm-Verlag.

[Schneider, U.(1986). *The Confessing Church between "joyful yes" and Anti-fascist resistance*. Kassel: Brueder-Grimm-Verlag. ]

Schwake, G.(2005). *Mönch hinter Stacheldraht, Erinnerungen an das KZ Dachau*. Aschendorff, Muenster.

[Schwake, G.(2005). *Monk behind barbed wire, memories of the Dachau concentration camp*. Aschendorff, Muenster.]

Schwarz, R.(2015). *Martin Luther. Lehrer der christlichen Religion*. Tuebingen: Mohr Siebeck.

[Schwarz, R.(2015). *Martin Luther. Christian Religion Teacher*. Tuebingen: Mohr Siebeck.]

Steinbach, P. & Tuchel, J.(2004). *Widerstand gegen die nationalsozialistische Diktatur 1933-1945*. Berlin: Lukas-Verlag.

[Steinbach, P. & Tuchel, J.(2004). *Resistance to the National Socialist dictatorship 1933-1945*. Berlin: Lukas-Verlag.]

Thamer, H.-U.(1994). *Verfuehrung und Gewalt. Deutschland 1933-1945*. Berlin: Siedler.

[Thamer, H.-U.(1994). *Seduction and Violence. Germany 1933-1945*. Berlin: Siedler.]

Zimmermann-Acklin, M.(2002). *Euthanasie. Eine theologisch-ethische Untersuchung*. 2. Auflage. Freiburg (Schweiz): Universitaets-Verlag.

[Zimmermann-Acklin, M.(2002). *Euthanasia. a theological-ethical Investigation*. 2<sup>nd</sup> Edition. Freiburg (Switzerland): Universitaets-Verlag.]

연합뉴스 2020.1.28., “아우슈비츠 해방 75주년 홀로코스트 희생자 추모식”

<https://www.yna.co.kr/view/AKR20200128083700009?input=1179m>(검색일 2020.2.25.)

[“Holocaust Victims’ Memorial Service for the 75th anniversary of the Liberation of Auschwitz”, yunhap news (2020.1.28), Retrieved from <https://www.yna.co.kr/view/AKR20200128083700009?input=1179m>(2020.2.25.) ]

한겨레 2020.2.10., “자식들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연명치료 거부’ 작성 50만명 넘어”

<http://www.hani.co.kr/arti/area/capital/927587.html#csidx9f904ea9ca3c593853f9bf1dcfd9cfa>(검색일 2020.2.25.)

[ “I don’t want to make the Children hard”... Over 500,000 written “Refus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Hankyoreh(2020.1.29.), Retrieved from <http://www.hani.co.kr/arti/area/capital/927587.html#csidx9f904ea9ca3c593853f9bf1dcfd9cfa>(2020.2.25.)]

뉴스1 2020.6.1., “2018년 10만명당 26.6명 극단적 선택...OECD 1위”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601\\_0001043432&cID=10201&pID=10200](https://newsis.com/view/?id=NISX20200601_0001043432&cID=10201&pID=10200)(검색일 2020.6.4.)

[“In 2018, 26.6 People per 100,000 People were Extreme Choices... OECD No. 1”, newsis(2020.6.1.), Retrieved from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601\\_0001043432&cID=10201&pID=10200](https://newsis.com/view/?id=NISX20200601_0001043432&cID=10201&pID=10200)(2020.6.4.)]

경기신문 2020.2.17., “부끄러운 기록들”

<http://www.kg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5272>(검색일 2020.6.4.)

[“Shameful records”, Gyeonggi sinmun(2020.2.17.), Retrieved from <http://www.kg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5272>(2020.6.4.)]

# 히틀러의 민족사회주의 정책에 대한 기독교회의 태도\*

## The Attitudes of the Christian Church in Germany at the time on the Hitler's National socialism policy

김기흥 (부산교육대학교)

### 논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히틀러의 민족사회주의 정책들에 대한 당시 독일 기독교회의 태도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알아보는 데 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몇 가지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히틀러와 민족 사회주의자들이 인종주의와 사회적 다윈주의를 중심으로 펼쳤던 정책들은 결국은 왜곡된 인간관에서 출발한 것이었다. 따라서 기독교회나 기독교인들은 성경적인 올바른 인간관을 교회내외에 정립시키는 일이 우선적으로 중요하다. 둘째, 교회와 국가 또는 종교와 정치 간의 관계는 교회와 기독교인들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교회와 기독교인들은 믿음의 본질을 망각하지 않고 기독교 세계관을 바탕으로 이 사회에 참여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 셋째, 국가권력이나 위정자들이 반기독교적인 가치관이나 정책을 펼칠 때 기독교인들은 이에 저항하는 일이 마땅하다. 그러나 국가권력이 그릇된 가치관과 통치력으로 나라를 이끌 경우에는 폭력적인 방법이 아니라 평화주의적인 정신을 바탕으로 엄중하게 경고하고 저항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히틀러, 안락사, 강제적 불임시술, 기독교회, 홀로코스트